

SK, 석유정제 시장 “완전평정”

공정위, 12월7일 인천정유 인수 허가 ... 정제능력 111만5000배럴

SK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천정유 인수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SK는 하루 정제능력이 84만배럴에서 111만5000배럴로 늘어나 GS칼텍스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시장점유율도 34%선에서 40%로 높아져 확고부동한 국내 정유시장 1위 자리를 다지게 됐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SK는 12월7일 공정위로부터 인천정유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허가를 받았다.

SK는 인천정유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9월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낸 바 있다.

공정위는 SK가 인천정유를 인수하면 시장점유율이 40%로 높아지고 GS칼텍스, S-Oil 등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85.9%까지 올라가는 점 때문에 기업결합 심사에 신중을 기해왔다.

그러나 인천정유 인수와 관련해 SK에 추가 이행조건 등을 내걸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5/12/08>